

큰스님 수행한담

4와 경전



60

대념처경



범산 대구 동화사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이며 중도 즉 팔정도를 떠난 불교는 존재할 수 없다. 사성제를 기초로 리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일본에서는 이미 네 종류의 팔리어장경(남정대장경)이 나왔고 대만에서도 완간패 원시경전의 이해를 넓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팔리어원전 없이 몇몇 학자들의 손에 그 작업이 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발원으로 동화사 몇 분 스님들과 함께 영국 팔리성전협회원과 미얀마 삼장협회본을 저본으로 일역의 남정대장경과 팔리어역본을 참고하여 원시경전을 역경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대념처경(大念處經)>은 원시경전 중의 하나로 육십을 비롯한 일체 번뇌를 생각 속에서 지워 버리고 생의 참뜻을 깨우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로움에서 벗어나는 조건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 경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대념처경>에는 제행 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등 삼법인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생노병사를 비롯한 여덟가지의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고통들은 한낱 생명의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통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고달리거나 집착하지 않고 감각을 탐닉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우리 몸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체의 덧없음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친다.

<대념처경>의 실천은 부처님이 직접 수행하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열반을 성취하셨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제도한 불교수행의 핵심인 것이다.

구합이 없으면 즐겁다"



1974년 일본 회원대학 유학시절 평화사에서 열린 생전어수재 법회를 진행하고 일본 불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맨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혜초스님.

나를 부르더니 "공부를 더 하라"며 일본 회원대학에 유학을 보내주었어. 일본유학 시절 고려사주지 태연스님을 만나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학교도 같이 다니고 신세를 많이 졌지.

태고종 총무원장을 1년여동안 했습니다. 96년 원장을 그만둔 후 곁말을 틀러 메고 선암사 무우전에 들어가 안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강원시절에 배운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초발심 시절로 돌아가 새로 시작했지요.

요즘들어 스님네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공부를 부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금생이나 내생에 반드시 불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무명을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속에 부처가 될 종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누구나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예요. 부처이기에 부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불자들을 보면 불교를 믿는답시고 절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건성으로 다닌다면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인 마음을 소중하게 바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해요
내것인 것 같아도 내것 없어
인연따라 왔다 떠나는 나그네일 뿐

라나 명예나 재산등을 구하는 탐욕은 끊임없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깨진 독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불법을 삼보에 귀의하면서도 무조건 귀의해서는 불교가 아니라 서지를 읽어야. 확실하게 이해하며 귀의해야 해요. 그래야 올바른 불교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요.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체계가 아닙니다. 신앙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믿는 세계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바라고 보다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마음을 일으켜 발심한 뒤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값진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또 전혀 다른 나로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것에 의지하여 행하면 마침내 얻고자 하는 보다 나은 삶, 보다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여 이상의 경계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有子有財 愚唯汲汲(유자유재 유유급급)
我且非我 何有子財(아차비아 하유자재)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어리석은 이는 괴로워 허덕이네
나의 '나'가 이미 아니거늘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이란 말

비워도 잃을게 없는 것은 오직 마음
명예 재산은 깨진 독처럼 끝없이 채워야

지런히 하거나 체계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에서조차 속성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불교가 종파불교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80여개 종단이 난립한다니 불교가 발전하기보다는 장애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의가 있어요. 이것은 '단약수선(약을 끊고 선을 행한다)'이지요. 불교의 요체도 '자비'예요. 불교는 자비정신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비란 해와 달이 만 중생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흐린 물속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보살님께서는 항상 자비광명을 비추지만 우리 중생들은 무명의 구름때문에 무한한 광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마음이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내마음이 없으면 이세상 어느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자신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통이를 올바르게 굴러야 합니다. 내 몸통이가 영원히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가 병가운데 들어있어 뚜껑을 닫아 놓았을 때 병이 달아나지 못했지요. 그러나 연젠가 병이 부서져 새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새는 항상 병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이는 병을 몸으로 새를 마음으로 비유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인간의 근본문제 앞에서 고뇌하며 살아가지요. 때로는 좌

나.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내것인 것 같아도 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인연 따라 이곳에 왔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것을 모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집착하면 할수록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얻고자 하는 데에 괴로움이 있고(有求即苦) 구합이 없으면 즐겁다(無求及樂)'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명예나 지위나 재산이다 하면서 무엇이든 내것으로 하려는 탐욕의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예요. 만약 이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안락의 경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지가 됩니다. 그

불교는 복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지극해야 부처님도 지극하여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절에 모셔왔지만 부처님이 복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내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성 불을 잘 찾아서 기도하고 영불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버려야 심상이 청정해서 자성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상이 차서는 공부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심상을 가리는 것이 탐 진 치 삼독인데, 삼독과 아집 염어리가 쌓여서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一切萬有 無非道(일체만유 무비도)
道本無位 何處覺(도본무위 하처역)
魔佛本是 無二性(마불본시 무이성)
猶如無影 水不窮(유어무연 수불窮)

일체만유가 도 아닌 것이 없다.
도는 본래 높고 낮음이 없다.
어느 곳에서 찾을까
마귀와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다.
가히 클이라 하는 것은 다함없고 근원 없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正念으로 대상을 깊이 관찰하라"
읽을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 길 보여

<대념처경>은 6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아함경> 권26에 나와 있는 경전으로 4세기말에 인도출신의 학승 구담승가제파가 번역한 것이다.

이 경전은 <사념처경> 또는 <염처경>이라고도 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바른 마음행김(正念)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념처경>의 팔리어 원 제목 '마하 사띠파타나 스타타(Maha-satipattana-sutta)'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띠파타나의 '사띠'는 정념의 바른 마음행김 혹은 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하며, '파타나'는 몸, 느낌, 마음, 법 등 마음생김의 네 대상에 굴진하고 면밀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즉 마음행김이 그 대상 속에 파고들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어느날 부처님이 자신이 아직 불도를 원만히 이루지 못했던 때의 일을 여러 비유를 앞세워 이야기하면서 육심이 없고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만 열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설명한다. 그리고 명상 속에서 온갖 잡념을 제거하는 것이 삶의 참뜻을 알고 인생의 일체 과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 세우고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 현상에만 집착할 뿐 정작 제대로 알고 도달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묶인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하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대념처경>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가르쳐준다. 마음을 간추려 내면의 세계를 보면 나와 남이 없고 모자람이나 남침도 없다. 오로지 시공이 초월된 세계의 모자람없는 참만함만이 있을 뿐이다. 이 경은 버리고 비우는 공부를 통해 맛볼 수 있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를 잘 그려 보이고 있다.

흔탁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굳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의지와 노력은 막연한 다짐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무엇을 어떻게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을 깨닫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념처경>을 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 삼천백 삼천백 저본(신간) 삼천백을 쉽게 하는 책
- ▶ 마음을 밝게 주는 새 법구 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 새로운 불교 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 깨달은 금강경 신역(상·하)
- ▶ 불교 EQ 1, 2
- ▶ 불교 말자 시킴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많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①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②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들에게 최고의 범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사이즈 39x39cm
색상 빨강, 검정
가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 전화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

권 無爲真人제3회 권 육신통(육경신) 정진대법회 권

중생들이 윤달드는 해에 수생전 빛을 갖지 않으면 잠자는 중에도 놀라며 밤이 두렵고 잠인지 꿈인지 뒤바뀌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삼신이 아득해져서 기억력과 침해로 고생하고 일곱가지 낮이 깊숙히 파고들어 정신도 모르고 중생의 혼백을 잡아당겨 정신도 못차리고 향락과 주색흡음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집안에는 금년 3 합운이 들은 무인년 윤 5월은 달일제하시면 어수선한 집안도 편해지고 올던 아이도 슬며시 돌아와 공부못하는 자 바람피우는 자 잠잘 때 코와 이를 가는 자들도 모두 잠잠해져서 신변에 닥치는 18가지 횡액에서 벗어나는 공덕에 참여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과 소원성취하시옵기를 아미타명호로 가릅니다.

특히 윤달드는 경신일에는 선비, 학자, 승려, 도인, 속인 귀하든 천하든 금생에 경신일에 입문하면 도통은 물론 천라주·지라주·일월황라주 일체마장을 항복받고 체중관리법과 금주비법과 신심안정과 병마를 이기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도요니 두루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일제일: 양 98년 7월 11일 (음 5. 18. 토요일) 해시
● 해제일: 양 98년 7월 12일 (음 5. 19. 일요일) 해시
● 기 비: 1박 2일 침식제공, 편한 숙차림, 5만원.
● 기도처: 서울 동국구 신대방동 360-188 (우)27922 (상업 APT.인 해사)
● 전화: (주)02-621-6622/(0)02-923-3110
● 휴대폰: 016-239-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윤달수의

어디서 구입할까?
한 번 팔고 사라지는 상인
몇 년을 불교장으로서 일해온 연합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어떻게 구입할까?
직접 확인(만져보고, 태워보고) 하시고
비교하신 후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서울 연합회 0361-241-5848
대전 불교장 연합회 02-732-9618
청주 연합회 0431-65-6626
대구 지암불교장(주) 053-654-0055
광주 불교장 연합회 062-226-5161
부산 연합회 051-554-0300
나주 불교장 연합회 0613-321-1224
진주 연합회 053-33-5115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